

# 1/ 가족주의 사회와 비혼여성의 새로운 친밀권

독신부인연맹(独身婦人連盟)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은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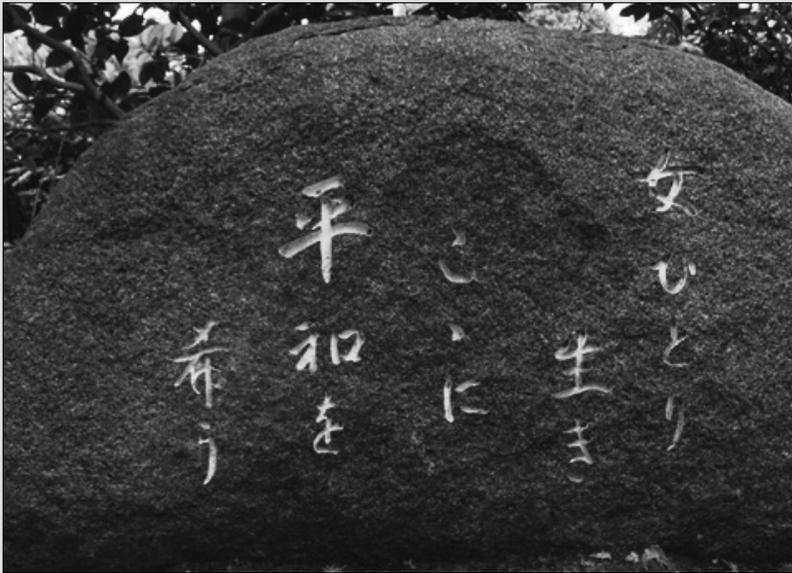


사진 제공: 田中慶明(<http://ameblo.jp/summer369/entry-10723731096.html#cbox>)

**지은숙(池恩叔)** 고려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인류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비혼자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일본에서의 가족과 돌봄(介護), 젠더의 새로운 관계 맺기 등에 관한 박사논문을 집필 중이다. 논문으로 「디아스포라 관점에서 본 재일조선인 여성의 결혼문제: 30대 여성의 결혼활동을 중심으로」(『재외한인연구』 25, 2011)가 있다.

\* 사진은 독신부인연맹 회원들이 건립한 무명의 전쟁독신여성을 위한 기념비다. 비석 전면에 “여자, 홀로 살다가 여기서 평화를 얻원한다”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교토 조자코지(常寂光寺)소재. 촬영자 다나카 씨의 승락을 얻어 게재함.

## 1. 머리말

‘독신부인연맹’[独身婦人連盟: 약칭은 도쿠후렌(独婦連)으로, 이하 본문에서는 도쿠후렌으로 표기]은 아시아·태평양전쟁 때문에 혼기를 놓친 ‘전쟁독신자’의 자조(自助) 모임을 표방하면서 1967년 전국 조직으로 결성된 단체다. 도쿠후렌은 통상 회원 300명 규모로 35년간 반전·여성 운동, 독신자 권리 찾기 운동 등을 수행하다가 2002년 공식적으로 해산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 도쿠후렌의 활동과 소속 회원들의 생애사를 중심으로 전후 일본 독신여성 집단의 형성과 변천을 새로운 친밀권(親密圈)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도쿠후렌은 오랫동안 개혼(皆婚)사회<sup>1</sup>를 유지해 왔던 일본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독신여성 단체이며, 독신자로서의 정체성을 전면에 내걸고 장기간 활동해 왔다는 점에서 드문 사례다. 때문에 생애미혼자가 급증하고 있는 오늘날의 일본에서 독신여성<sup>2</sup>이 어떻게 가족과 다른 친밀권을 형성할 수 있으며, 그 친밀권은 어떤 특성을 띠게 되는가라는 문제를 파악하기에 도쿠후렌은 적절한 참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 글에서 분석 범주로 채택하고 있는 친밀권은 사이토 준이치(齋藤純一)의 개념을 빌어온 것으로 그는 친밀권<sup>3</sup>을 “구체적인 타자의 생·생명, 특

- 1 ‘개혼사회’란 결혼 규범이 강력하게 작용했고, 실제 남녀 공히 결혼 비율이 매우 높았던 시기(대략 1980년대 이전)를 지칭하기 위해 일본 사회과학계에서 널리 쓰이는 개념이다.
- 2 이 글에서 독신여성은 결혼 이력과 무관하게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여성을 의미한다. ‘독신부인연맹’의 회원들의 대부분은 생애미혼여성이었지만 자식이 없는 과부나 이혼녀도 소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이 스스로를 독신으로 칭한다는 점을 존중해서 독신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에 비혼여성, 생애미혼여성을 병기했다. 생애미혼자의 기준은 일본의 인구조사에서 상용하는 50세 시점의 법적 미혼이다.
- 3 밝혀두자면 본 연구자는 사이토 준이치의 친밀권(親密圈)을 친밀 영역으로 번역해 “친밀 영역의 공공화”(정성훈, 「도시공동체의 친밀성과 공공성」, 2013, 315쪽)와 같이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사이트의 경우 intimate sphere는 public sphere가 아니라 오히려 publics와 짝을 이루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한나 아렌트의 영향을 받은 그의 정치학에서 공공 영역(public sphere)은 공공성(publicness)이 현상하는 빛의 공간으로 다양한 공공권(publics)의 경합으로 드러나는 데 비해, 친밀권(intimate sphere)은 공공 영역의 빛이 닿지 않는 어둠의 공간이다. 이 친밀권에서 배제된 자들은 대항적 공공권(counter public)을 형성해 정치와 빛의 공간으로 진출한다는 논의의 구도를 세우고 있는 것이다. 그의 정의에 따르면 공공권은 특정한 담론 혹은 논의의 공간을 의미하며 publics와 같이 복수로 쓸 수 있지만 공공 영역은 담론 네트워크의 총체를 지시하는 것으로 복수로 쓸 수 없다(齋藤純一, 『公

히 그 불안이나 곤란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매개로 한 특정 정도 지속적인 관계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정의한다.<sup>4</sup> 정치학자로서 사이토의 관심은 아렌트나 하버마스에 의해 공공권의 배후에 존재하며 정치성을 담기 어려운 것으로 간주되어 왔던 친밀권에 감춰진 정치성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드러내는 것이다. 그에게 친밀권이란 일종의 공간으로 치매환자, 정신장애자, 범죄피해자 등과 같이 낙인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회적인 승인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승인을 부여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생의 방식이나 경험을 긍정하게 하는 생의 의지처로서 규정될 수 있는 것이다.

기존의 친밀성<sup>5</sup>을 둘러싼 논의와 사이토의 접근이 다른 것은 그가 친밀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오늘날에는 일종의 지배적 담론이 된 소수자의 ‘정체성 정치’에도 포함되기 어려운 ‘버려짐’(Verlassenheit)<sup>6</sup>의 문제에 주목했다는 점이다. 사이토는 이 버려짐을 사회적인 낙인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도시 고령자나 돌봄에 장기간 속박되어 있는 사람들처럼 분리(segregation)되고 고독한 처지에 놓여 있는 이들의 문제로 범위를 확장하면서 이것을 ‘친밀성의 정치’로 공론화했다. 그에 따르면 ‘내가 없어도 상관없지 않나’라고 스스로의 존재의 현실성을 의심하는 버림받은 이들에게 존재에 대한 긍정(affirmation)을 획득 하는 문제는 정체성에 대한 승인(recognition) 이상으로 통절하고 뿌리 깊은 문제일 수 있다.<sup>7</sup> 이처럼 사이트

共性』, 岩波書店, 2000). 이에 비해 친밀권(intimate sphere)은 서로 다른 친밀권이 복수로 존재하며 공공권에 근접한다. 이런 까닭에 사이트 준이치의 논지를 살린다는 취지에서 이 글에서는 용어의 생소함을 무릅쓰고 ‘親密圈’을 친밀 영역이 아니라 친밀권으로 번역해 쓰고자 한다.

4 齋藤純一, 『親密圈と安全性の政治』, 『親密圈のポリティクス』, ナカニシヤ出版, 2003.

5 친밀성(intimacy)은 앤서니 기든스의 『현대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 친밀성의 구조변동』(1996/1992)을 기점으로 사회과학에 널리 보급되었지만 그의 고유한 용어는 아니다. 한나 아렌트는 근대에 들어 사회적 것(the social)의 확대와 더불어 도피처로서 친밀성의 영역(a sphere of intimacy)이 확대되었다고 하면서 이를 세계로부터의 소외로 규정했었고, 위르겐 하버마스는 핵가족적 친밀성 영역에서 부르주아 공론장이 형성되었다는 점에 주목하기도 했다. 기든스는 이처럼 근대에 들어 형성된 사회적 영역의 속성의 하나로 논의되던 친밀성 개념을 현대 사회의 섹슈얼리티의 변용과 연결해 성적 관계를 동반하면서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관계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배치한 것이다. 사이트 준이치는 지속적인 돌봄의 실천에서 발생하는 관계성 혹은 공간을 친밀성의 핵심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든스보다는 아렌트나 하버마스의 친밀성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있다고 할 것이다.

6 아렌트는 이것을 타자로부터 응답 가능성을 상실한 삶으로 정의함.

7 齋藤純一, 『公共性』, 岩波書店, 2000.

의 논의는 기존의 성적 연대를 중심으로 한 친밀성(intimacy) 논의와 거리를 두고,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통해 존재에 대한 긍정을 제공하는 관계성으로 친밀권(intimate sphere)을 규정하면서 버려진 이들이 형성한 친밀권이 어떻게 대항적 공공권을 창출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한편 도쿠후렌을 통해 비혼자의 새로운 친밀권을 탐구하고자 하는 이 글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독신여성들의 대항적 공공권 창출과 그것이 갖는 정치적 의의보다는 그것을 통해 어떻게 친밀권 형성의 기제들이 발전되고 유지되었는가 하는 측면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글은 사이트의 친밀권의 정치학을 내적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방향에서의 시도는 기존의 가족과 복지 분야의 연구에서도 있었다.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의 관심은 ‘친밀권이 가족을 대체할 수 있는가’<sup>8</sup> 하는 범주적 것이나 ‘어떻게 하면 새로운 친밀권을 복지의 우산 밑으로 끌어들이 수 있을까’<sup>9</sup>라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중심을 이루었다. 애초에 친밀권 자체가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가 하는 점에 주목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더불어 가족주의 사회에서 가족과 다른 친밀권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도 적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류학적 현장 연구를 통해 비혼여성의 새로운 친밀권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이 글은 친밀권의 구축과 공공권 창출의 구체적인 맥락 관계를 통해 친밀권 형성을 추적하고, 그 내용에 근거해서 ‘친밀권 간의 정치학’의 필요성을 도출해 낸다는 점에서 기존의 시도와 차별화된다.

가족주의란 여러 친밀권 가운데 하나인 가족을 특권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론에서 다시 논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일본은 가족주의가 강하게 나타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혈연과 성적 관계성을 중심으로 법률로 보호받는 가족이라는 친밀권을 ‘가족’으로 표기하고, 그 외의 친

8 上野千鶴子, 「家族の臨界: ケア分配公正をめぐるって」, 『家族社会学研究』 20(1), 2008.

9 久保田裕之, 「『家族の多様化』論再考-家族概念の分節化を通じて」, 『家族社会学研究』 21(1), 2009; 久保田裕之, 「家族社会学における家族機能論の再定位: 〈親密圏〉・〈ケア圏〉・〈生活圏〉の構想」, 『大阪大学大学院人間科学研究科紀要』 37, 2011.

밀한 관계성을 ‘가족과는 다른 친밀권’으로 정의하고 ‘친밀권’으로 표기하겠다.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인류학의 민족지 조사방법(ethnography)으로 수행되었다. 2012년 6월부터 12월까지 도쿄와 나고야에서 도쿠후렌 회원과 관계자들에 대한 현장 연구를 실시하였다. 단체는 이미 2002년에 해산하고 상당수가 작고한 상태였지만, 도쿠후렌에 관한 단행본<sup>10</sup>을 출간한 저자의 주선으로 생존해 있는 주요 인물들을 만나 볼 수 있었다. 또 나고야를 중심으로 한 도카이(東海) 지부는 해산 후 10년이 경과한 당시까지 꾸준히 모임을 이어오고 있어서 이들의 모임에 참가하고 회원들을 면담하는 것이 가능했다. 과거의 활동에 관한 자료로는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건네받은 사진과 기록, 도쿠후렌의 기관지<sup>11</sup>와 기타 문헌자료를 사용하였다.

## 2. 가족주의 사회와 독신여성

### 1) 독신여성 집단의 형성

일본은 다른 아시아 지역과 마찬가지로 근세 이후 오랫동안 개혼사회를 유지해 왔다. 오늘날에는 생애미혼율이 남자 20%, 여자 10%를 넘고 있는 ‘비혼자 대국’ 일본이지만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모든 사람이 일생에 한 번 이상 결혼했고, 결혼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사람 대접을 받기 어려운 개혼사회였다. 이처럼 독신자 집단이 낮은 존재였던 탓에, 전후 최초로 일본 사회에 독신여성 집단이 등장했을 때 그들은 가족주의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온한 존재로 배척받았다. 현재도 그와 같은 인식이 남아있지만 1970년대까지 일본에서 생애독신은 인간적 결함의 결정적 예증으로 통용되었다.

10 古庄弘枝, 『独身婦人連盟 どくふれん—元祖「シングル」を生きた女たち』, ジュリアン出版, 2005.

11 1967년 10월 『DFR どくふれん』 창간, 1971년 1월 11호부터 『아카네』(茜)로 이름을 바꿔 2002년 해산할 때까지 총 140호 간행.

독신여성 집단의 출현에 일본 사회가 보인 반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혼사회 여성들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듯하다. 역사인구학자인 코넬<sup>12</sup>은 요코우치라는 중부 지역 한 마을의 1671년부터 1871년까지 100년 간의 인구 기록 자료를 사용하여, 전근대 사회에서 여성들에게 선택 가능했던 진로와 독신여성의 개별 가구 안에서의 역할을 추적했다.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자.

요코우치에서는 100년 동안 734명의 여자가 태어났다. 이들의 일반적인 생애 과정은 출생 가구를 떠나서 다른 가구로 호적을 옮기는 것, 즉 결혼이라는 생애 사건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따금 남성 상속자가 없는 경우에 딸들 중에서 데릴사위를 맞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런 경우는 전체 등록된 인구의 3.6%에 불과했다. 이 마을의 평균 초혼 연령은 18.4세, 80% 이상이 21세가 되기 전에 결혼을 했고, 그 나머지도 늦든 빠르든 결국은 결혼했다. 요코우치의 여성들은 출생 가구 내에서 노동자로 간주되지 않았고, 서유럽의 독신여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가구 안에서 주부를 대행하거나 보조하는 기능을 하지도 않았다. 한편 미혼여성이 다른 집으로 하녀로 일하러 간다거나 일자리를 찾아서 이주하는 사례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선택은 온전히 남성에게 한정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이것은 서유럽의 독신여성들이 10대 후반부터 집 안팎에서 하녀로 일하거나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과 대조를 이루는 점이다. 심지어 종교도 그들에게 다른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 요코우치의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은 결혼 외에 아무것도 없었던 셈이다.

그 결과 100년 동안 요코우치에서 태어난 734명의 여성 중 생애미혼자는 단 4명이었다. 이들 4명의 일생은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이 유일한 특징이다. 가구 내에서 아무런 역할도 없었고, 가구 바깥에서 따로 직업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생애미혼자로 출생 가족 안에 남아 있었던 이 4명에게 아마도 심각한 신체적 장애가 있었을 것으로 코넬은 추측한

12 Laurel L. Cornell, "Why Are There No Spinsters in Japan?" *Journal of Family History* 9, 1984, p.326.

다. 이처럼 전(前)산업사회 일본에 독신여성이 적었던 배경에는 여성의 사망률이 높았던 점이나 초혼 연령이 비교적 낮았다는 점 등도 작용하고 있었으나, 무엇보다 여성이 출생 가구 내에서 노동자로서 간주되지 않았고 가구 밖에서도 다른 역할을 얻을 수 없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sup>13</sup>

그렇다면 일본에서 자립해서 살아가는 생애독신이라는 의미에서의 독신여성은 어떻게 출현했는가. 최초의 등장은 메이지 시대 들어와 시작된 여성에 대한 근대교육을 배경으로 했다고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쓰다 우메코(津田梅子)는 이 새로운 시대의 독신여성의 전형으로 꼽을 수 있는 인물이다. 그녀는 1871년 다른 5명의 소녀들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 공부를 하고, 귀국 후에는 생애독신으로 살면서 여성 교육에 헌신하고 나중에 쓰다주쿠(津田塾)대학을 설립했다. 물론 이처럼 의도적으로 결혼제도 밖에 몸을 두고 자신의 일에 몰두하는 여성은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광고탑과 같은 존재로, 매우 드물었다. 하지만 여성들이 근대 교육의 혜택을 받기 시작한 것이 독신여성이 증가하는 토양으로 작용하기 시작한 것만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이 밖에도 자립한 독신여성들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20세기 들어 여성들이 가족을 떠나 자립할 수 있는 제반 조건이 형성되었기 때문이었다.

그 첫 번째 조건으로 들 수 있는 것이 산업화에 따른 일자리의 확대였다. 메이지 시기부터 교사, 간호부, 전화교환수 등의 전문·기술직에 진출하는 여성들이 간혹 있었으나, 제1차 세계대전 후의 호황을 타고 비교적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민간기업에 사무직이나 판매원으로 취업하는 예가 증가하여 이른바 ‘직업부인’(職業婦人)이라는 새로운 집단이 형성되었다. 직업부인 중에는 기혼자의 비중이 높았으나 「국세조사」(国勢調査)를 살펴보면 1930년대 이후 미혼자 비중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sup>14</sup> 또 이 시기를 살았

13 “왜 일본에는 스핀스터들이 없는가”라는 제목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코넬의 연구는 스핀스터, 즉 생애미혼자로서의 독신여성이 존재했던 여유를 표준으로 두고 일본의 경우를 비교하고 있다. 역사인구학적 접근의 이와 같은 서구 중심적 문제제기는 이후 비판의 표적이 되기도 했다는 점을 적어둔다.

14 예를 들면 1920년과 1930년 「국세조사」에 나타난 미혼 여성의 취업 현황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

던 여성들이 피낸 회고록<sup>15</sup>을 살펴보면 앞날을 알기 어려운 전중기(戰中期)의 결혼을 피해 자립을 선택하고 ‘독신 직업부인’의 길을 선택했다는 내용이 많다. 이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사회 이전의 일본 여성에게는 존재하지 않았던 선택지였다. 산업화와 근대 교육의 확대가 가져온 변화라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독신여성 증가의 조건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메이지 이래 일본의 가족제도로 정착한 ‘이에’(家)제도의 특성이었다. 바크닉<sup>16</sup>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일본의 직계가족 가구는 “가구 안에서 오직 하나, 예외 없이 한 커플만이 각 세대의 영구적인 거주자가 될 수 있었고, 가구 안의 나이든 시누이의 존재는 새신부와 경쟁 관계에 들어가 갈등 요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앞서의 회고록<sup>17</sup>에서 결혼이 아닌 형태로 이에(家)에서 독립했던 여성들이 이에로부터 분리된 시기를 보면, 이에를 이을 남자 형제의 결혼과 맞물린 경우가 많았다.

그렇다면 20세기 전반 일본에서 독신여성이 증가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겠다. 우선 근대 교육의 혜택을 받은 여성의 수가 증가하고 이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점을 토양으로 꼽을 수 있다. 그 위에 장기간의 전쟁이 계기로 작용하여 결혼을 유보하는 여성들이 증가하였고, 방계가족을 허용하지 않는 이에제도의 특성이 이들의 독립을 촉진했고, 그 결과 독신생활이 장기화된 된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다. 전중기 여성들의 삶에 나타난 이러한 변화는 패전을 거치면서 전후, 생애미혼자로 사는 독신여성 집단의 출현으로 이어졌다.

1945년 패전 직후 일본에서 전쟁 때문에 혼기를 놓친 독신여성들은 일

다. 1920년 「국세조사」에서 판매직 종사 여성은 미혼 3만 5,973명, 유배우자 29만 3,614명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10년 후인 1930년 조사 결과를 보면 판매직과 유사한 분류로 간주할 수 있는 상업직 종사 여성에 미혼 35만 7,360명, 유배우자 69만 231명으로 나타나 이 분야에 취업한 미혼여성의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大正9年国勢調査」, 「昭和15年国勢調査」 참조.

15 谷嘉代子 編, 『女ひとり生き ここに平和を希う—昭和戦争独身女性の証言』, 一休社, 1989.

16 Jane M. Bachnik, "Recruitment Strategies for Household Succession: Rethinking Japanese Household Organization," *Man* 18, 1983, pp.160~182.

17 谷嘉代子 編, 『女ひとり生き ここに平和を希う—昭和戦争独身女性の証言』.

〈표 1〉 일본의 성별 생애미혼율의 추이

(단위: %)

	1930년	1940년	1950년	1960년	1970년	1980년
여자	1.48	1.47	1.35	1.87	3.33	4.45
남자	1.68	1.75	1.46	1.26	1.70	2.60

출처: 총무성, 『국세조사』.

종의 사회문제로 부상하기도 하였다. 서른 넘은 딸인 ‘산주무스메’(三十娘)가 일본 전역에 50만 명에 이른다는 소문이 있었는가 하면, 그 아래 세대인 결혼 적령기를 맞은 20대 여성들은 미혼 남성의 대량 전사로 인해 ‘사위 후보 한 명에, 며느리 후보가 한 트럭’이라고 할 정도로 혹독한 결혼난을 겪어야 했다. 〈표 1〉은 1930년대부터 일본의 생애미혼율의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것이다. 전쟁을 겪은 코호트(cohort)에서 대량으로 생애미혼자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속설대로 청년기에 전쟁을 겪은 ‘다이쇼(1912~) 두 자리수, 쇼와(1926~) 한 자리수 연도 출생’인 여성들이 50세에 도달하는 시점에서 생애미혼율이 확연히 치솟는 것을 볼 수 있다.

## 2) ‘우레노코리’라는 낙인

독신여성은 가족 단위 사회에서 소수자이기 때문에 차별받으며, 그에 더해 여성이라는 이유로 비하의 대상이 된다. 혼기를 넘긴 독신여성을 의미하는 속어인 ‘우레노코리’(売れ残り)의 사전적 의미<sup>18</sup>는 ‘팔다 남은 상품’이다. 영어라서 다소 순화된 울림을 갖지만 ‘올드 미스’도 비슷한 의미로 통용되었다. 이 밖에도 전후 일본에는 결혼 적령기를 넘긴 여성을 향한 다양한 낙인이 있었는데, 공통적으로 ‘요케이모노’(余計者), 즉 처치 곤란하고 불필요한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일본에서 이 우레노코리라는 단어의 낙인효과는 1970년대까지도 절대적이었다.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고 학력이 높더라도, 독신여성이라면 이 우레노코리라는 단어 앞에서 단숨에 존재를 부인 당하고 요케이모노로 전락하고 말았다.

18 『広辞苑』第五版.

오랫동안 개헌사회를 유지해 온 일본 사회에서 독신여성은 확실히 이질적인 존재였을 것이다. 그러나 앞 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후 독신여성 집단의 등장엔 전쟁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요인이 결부되어 있음을 생각한다면, 독신여성에게 그토록 가혹한 낙인이 붙은 맥락은 선뜻 수궁하기 어렵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후의 바람직한 여성상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치아이 에미코<sup>19</sup>는 전후 일본에서 1950년에서 1975년까지 여성의 주부화와 재생산 평등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가족의 전후체제가 성립했다고 지적한다. 즉, 결혼에서 이른바 적령기 규범이 강하게 나타나 대다수의 여성들이 24세에 결혼해서 전업주부가 되고, 비슷한 시기에 두세 명의 아이를 낳는 똑같은 생애과정을 밟았다는 것이다. 이른바 ‘가족의 55년 체제’가 존재했던 셈이다.

일본에서는 1955년 이후의 경제발전과 더불어 일하는 여성이 증가된 것으로 평가되지만, 실제 여성 고용률이 일관되게 상승했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고도성장기에 샐러리맨 가정이 증가하면서 이른바 ‘주부화’가 진전되어, 전업주부가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여성을 상회하기도 했었다. 그러한 까닭에 고도성장기 일본에서는 전업주부가 시대를 대표하는 여성상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당시 기업전사인 남편과 그를 후방에서 지원하는 아내라는 성별 분업은 ‘자연화(naturalization)된 젠더 역할’<sup>20</sup>로 간주되었고 바로 그것이 기업 중심 사회를 조성하는 원동력이었다.

이처럼 성별 역할 분업 질서를 자연화하는 사회에서 일하는 독신여성은 어떤 의미에서 자연에 거스르는 존재로 간주되었다. 즉, 남성 샐러리맨도 주부도 아닌 일하는 여성은 온전히 남자의 영역에도 여자의 영역에도 속하지 못하는 부자연스러운 존재로 취급되었던 것이다. 그와 같은 존재 자체에 대한 부인은 가족주의 사회의 규범적 압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층위에서 구체적인 제도적 차별과 불이익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결혼

19 落合恵美子, 『21世紀家族へ：家族の戦後体制の見かた・超えかた』第3版, 有斐閣, 2004.

20 Andrew Gorden, "Managing the Japanese Household: The New Life Movement in Postwar Japan", *Social Politics*(summer), 1997, pp.245~283.

퇴직이 당연시되던 당시의 분위기에서 근속을 고집하는 독신여성에게 가해지는 비공식적 퇴직 압력이나, 정년퇴직에서의 공식적인 남녀 차별은 독신여성의 생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되었다. 또 독신자의 경우 가족공제가 없기에 세금은 남보다 많이 내야 하는데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거의 없다는 것도 주요한 차별로 지적되었다. 가족 없는 독신자는 공영주택 신청 자격조차 얻을 수 없었다. 어느 정치 간담회에서 그러한 정책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독신자의 공영주택 입소를 허가하라는 요구가 있자, 어느 국회의원은 “일반 세대와 독신여성이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것은 풍기문제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사이토 준이치는 20세기 후반 세계적인 난민의 증가를 보면서 ‘장소를 박탈당한 사람들’(displaced persons)이 어떻게 생의 의지처가 되는 장을 찾아낼 것인가라는 친밀권 확보의 문제가 정치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sup>21</sup> 마찬가지로 1960년대 가족의 전후체제 한복판에서 남성 셀러리맨도 주부도 아닌 인생을 살아온 독신여성들 또한 사회 속에서 몸 둘 곳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에서는, 생의 의지처를 찾는 ‘난민’과 다름없는 처지였다고 할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들이 어떻게 대항적 공공권을 형성해 정치의 장에 진출하고 가족과는 다른 친밀권을 구축해 나갔는지를 살펴보겠다.

### 3. ‘독신부인연맹’의 결성과 친밀권의 구축

#### 1) 대항적 공공권의 창출

1967년 9월 도쿠후렌의 결성은 독신자를 차별하는 현실에 대한 최초의 집단적인 반격이었다. 조직 결성의 발단을 제공한 것은 본인도 전쟁으로 약혼자를 잃고 독신으로 살아온 노동문제 전문가 오쿠보 사와코였다. 독신여성

21 齋藤純一·竹村和子, 「親密圏と公共圏の「あいだ」—孤独と正義をめぐる—」, 『思想』 925, 2001.

이 안고 있는 사회적 차별과 생의 곤란에 관해 잘 알고 있던 그는 주변 독신여성들의 생활상 곤란을 체계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아사히저널』에 「“여성의 위치”: 단결합시다 전국의 하이미스-독신여성의 실태조사”<sup>22</sup>라는 제목으로 투고했다. 이것이 1967년 6월에 『아사히저널』에 게재되어 미디어의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취지에 공명한 독신여성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어 3개월 후 ‘도쿠후렌’이 발족했다. 발기 회원 185명의 직업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것이 회사원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하는 85명이었고, 그 다음을 차지한 것이 공무원으로 17명이었다. 나머지는 대개 비슷해서 자영업 13명, 교사 13명, 양재업 11명, 간호부 11명 등이었다.

당시 나고야에 살았던 35세의 회사원 나루세 씨는 가입 경위를 이렇게 회고했다.

“가나가와 현에 살던 오쿠보 씨가 ‘도쿠후렌’을 조직했는데, 그때는 아직 인터넷도 아무것도 없던 시대였다. 신문 잡지 같은 데서 ‘독신부인연맹’(独身婦人連盟)을 줄여서 ‘도쿠후렌’(独婦連)이라고 했다. 처음 봤을 때는 ‘뱀나, 도쿠후렌(毒婦連)’이상한 이름이라고 생각했었다(웃음).<sup>23</sup> 다양한 친구가 생기고 세계가 넓어질까 싶어서 편지를 보내 회원으로 가입했는데…… 그렇게 45년이다”

- 2012년 12월 나루세 씨 면담 녹취 중에서

1967년 창립 당시 도쿠후렌은 앙케이트에서 독신여성들의 요청이 많았던 노후대책, 단체여행, 결혼상담을 전담하는 사업부를 설치했다. 참가비는 월 100엔, 30세 이상의 독신여성이면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도록 했다.<sup>24</sup> 오

22 하이 미스(high miss)는 올드 미스(old miss)에 대항하는 뜻을 담아 만든 일본식 영어. 사전적 의미는 고령의 미혼여성.

23 ‘独婦’와 ‘毒婦’(악독한 여자)의 음이 ‘도쿠후’로 같은 것을 두고 하는 농담.

24 기본적으로 도쿠후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것은 결혼 이력과 무관하게 현재 배우자와 자식이 없는 독신여성뿐이었다. 다만 회비를 내고 기관지만 받아보는 찬조회원이라는 제도가 존재했는데, 연구자가 확인한 바로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활동의 일선에서 물러나지만 도쿠후렌과 인연을 남겨 두고 싶은 사람들이 탈퇴 시 활용된 제도였다. 이 찬조회원 중에 배우자나 자식이 있는 사람들이 존재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쿠보 회장의 증언에 따르면 도쿠후렌 창립 당시에는 딸의 결혼문제로 고민하던 부모들의 문이가 쇠도해 600명이 넘는 회원이 모여들었고 초기에는 집단맞선과 같은 중매사업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나면서 결혼 사업은 자연스럽게 소멸했고, 이와 더불어 회원 수도 줄어들어 생애독신자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300명 정도만 남게 되었고, 이후로도 계속 그 정도를 유지했다.<sup>25</sup> 도쿠후렌의 조직과 활동을 보면 간토(關東) 지부, 간사이(關西) 지부, 도카이(東海) 지부와 기타 지방 회원으로 조직되어, 가입과 탈퇴를 비롯한 일상적인 활동은 각 지부 산하의 그룹에서 수행하고 본부에서는 대외 활동을 담당하는 식으로 대략 나뉘어, 소식지와 기관지, 정기 총회 등을 통해 각 단위 간 사업 내용을 공유하는 시스템이었다. 단위별 사업은 일상적인 교류가 주를 이루었고, 전체 사업은 독신자 차별에 대해 ‘전쟁독신’으로서의 대항적 공공권을 형성하는 활동이 주를 이루었다.

도쿠후렌은 발족 당시부터 전쟁독신자의 모임이라는 성격을 뚜렷하게 표명했다. 자신들의 독신은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라 국가적 재난의 결과이기 때문에 전쟁 미망인과 마찬가지로 차별이 아닌 지원의 대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도쿠후렌 회원들의 전쟁 경험을 기록한 글을 모아 단행본으로 발간하는 등 언론을 활용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발신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피해자성을 강조해 차별을 극복하고자 하는 이러한 도쿠후렌의 전략은 개인사와 개인의 기억을 통해 아시아·태평양전쟁을 재조명하려는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일정한 사회적 반향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런가 하면 도쿠후렌은 복지와 세금문제에도 전쟁독신의 레토릭(rhetoric)을 활용했다. 전쟁 피해자인 독신여성에게도 소득세와 주민세 등의 세금에서 과부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공제를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는가 하면, 부모를 부양하고 돌보는 딸들에게 상속권을 부여할 것, 증여제도

25 東京歴史科学研究会婦人運動史部会, 「『戦争独身』と女性の戦後—独身婦人連盟会長大久保さわ子氏に聞く」(女性史特集—歴史のなかのシングル), 『歴史評論』, 1992-3.

배우자 대우를 해 줄 것을 정부 각처에 요구하기도 했다. 2002년 해산할 때까지 꾸준히 이루어진 세금과 관련한 이러한 활동은 ‘불필요한 존재’로 부정당해 온 독신여성의 존재를 사회적으로 가시화하고 독신자의 복지문제를 정치화한 공로가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도쿄를 중심으로 한 간토 지부 회원들은 창립 초기부터 독신자의 세금과 복지문제에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왔고, 그 결과 1981년에 공영주택법 17조를 개정해 독신자 지분을 만들도록 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통해 종래 공영주택 입주를 신청할 자격조차 부여받지 못하던 ‘혼자 사는 사람’도 비로소 공영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전쟁독신의 레토릭은 피해자성을 강조해서 낙인을 피하고 공적 자원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하는 데 유리한 여론을 조성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동시에 남편이라는 존재가 결여된 사회적 과부로 독신 여성을 규정짓게 되는 부정적 측면도 있었다. 즉, 전쟁 때문에 배우자를 얻지 못해 독신이 된 피해자라는 레토릭은 독신됨(singlehood)이 불완전하고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이미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주의사회에서 가족이 없는 독신여성들도 시민으로서 온전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보편적 시민권에 대한 요구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로서의 특수성과 시민성이 늘 갈등 관계에 놓여 있던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간사이 지부의 ‘온나노히’(女の碑)와 관련한 활동은 전쟁독신의 피해자성을 보편적 시민성으로 수렴해 간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온나노히는 1979년 도쿠후렌 간사이 지부가 중심이 되어 세운 전쟁독신으로 살아온 이름 없는 여성들을 위한 기념비였다. 그 비석 전면에는 “여자, 홀로 살다가 여기서 평화를 염원한다”<sup>26</sup>라는 글귀를 새겼고 뒷면에는 후세에게 전하는 반전(反戰)의 경계와 더불어 “이 비석이 이후 홀로 사는 여성들의 대화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의 취지문을 새겼다. 자신들이 독신이 된 이유가 전쟁피해라고 명확히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스스로

26 원문은 “女ひとり生き ここに 平和を希う。”

가 겪은 고통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반전 메시지를 발신하는 이와 같은 활동은 보상요구에 머물지 않는 참신한 발상의 반전평화운동으로 세간의 관심과 찬사를 모으기도 하였다.

이렇듯 창립 이후 반전운동, 여성운동, 독신자 권리 찾기 운동의 영역에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도쿠후렌은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공식적 대외 활동이 소강 상태에 빠져든다. 간사이 지부를 중심으로 결성된 ‘온나노히’ 모임이 독신여성을 위한 지연묘(志縁廟)를 만든 것이 2002년 해산할 때까지 가장 눈에 띄는 대외활동이었다. 기관지와 활동 기록을 살펴보면 각 지부와 그룹 단위의 일상적인 활동은 이전과 달라진 것 없이 계속되었고 오히려 활발해진 곳도 있었지만 대외활동만이 크게 축소되었던 것이다.

이렇듯 대외활동이 위축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는 자발적 독신으로서의 ‘싱글’이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1980년대 일본에서는 결혼제도 바깥에서 살아가기를 희망하는 여성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고 ‘싱글’이 하나의 삶의 방식과 문화로 제시되기 시작하였다. 싱글즈(single's), 싱글우먼(single woman), 싱글라이프(single life) 등 싱글(single)을 앞세운 출판물이 넘쳐났고 비혼(非婚)을 외치는 저작물도 등장했다. 이때의 ‘싱글’은 스스로 선택했다는 자발성을 강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이전 세대의 ‘우레노코리’와는 다른 적극적인 함의를 담고 있었다. 또한 성적 측면에서의 자유를 추구한다는 것도 이전 세대의 독신과 다른 점이었다. 이렇듯 1980년대에 시작된 ‘싱글붐’은 세금이나 복지문제에서 독신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온존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성을 강조하던 도쿠후렌 활동의 명분을 퇴색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둘째는 회원들의 연령으로 볼 때 ‘부모 돌봄’으로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 회원들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돌보는 대상은 어머니가 많았는데, 그 중에는 오랜 세월 어머니와 동거 끝에 자발적으로 돌보게 된 이들도 있었지만, 따로 살다가 ‘사정상 어쩔 수 없이’ 독신인 본인이 부모를 떠맡게 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지금까지 도쿠후렌의 결성과 활동을 대항적 공공권의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사이토는 반공해투쟁과 주민운동을 예로 들면서 “친밀권은 동시에 공공권의 기능을 가지기도 하며, 새롭게 창출되는 공공권의 대부분은 친밀권이 전환되어 생겨난다”<sup>27</sup>고 친밀권과 공공권의 관계를 서술한다. 이때 사이토가 염두에 둔 것은 어느 정도 경계가 뚜렷한 친밀권이 이미 존재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공공권이 형성되는 형태인 듯하다. 하지만 살펴본 바와 같이 도쿠후렌의 경우는 사이토가 제시한 것과는 양상이 다소 달랐다. 친밀권이 전환되어 공공권이 되었다기보다는 전쟁독신으로서의 공공권의 형성과 그 이후의 조직 활동이 새로운 친밀권 형성의 토대가 되었다고 하는 편에 더 가깝다. 즉, 전쟁독신을 내걸고 도쿠후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고립되어 있던 독신여성들 간의 친밀권이 비로소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특성은 도쿠후렌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었던 요인이면서 동시에 재생산을 불가능하게 한 제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전쟁독신임을 강조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피해자성을 강조하여 우레노코리라는 사회적 낙인에 저항하는 측면을 지니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독신됨의 비자발성을 강조함으로써 1980년대 이후 등장한 자발적 싱글 여성들과 도쿠후렌을 구분 짓는 경계가 되었기 때문이다. 1967년에 결성되었을 때 도쿠후렌은 전쟁 때문에 독신이 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30세 이상의 독신여성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조직이었다. 하지만 세대로 볼 때 당시 가입한 이들은 어떤 형태로든 전쟁의 피해를 입었고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도쿠후렌이 내건 전쟁독신이라는 슬로건은 회원들 간의 개인적인 차이를 넘어 널리 수용될 수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싱글붐은 전쟁을 모르는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었고 그들에게 독신 앞에 붙은 ‘전쟁’은 자신들과 구세대를 가르는 넘을 수 없는 벽으로 인식되었다. 그들은 자발적 싱글인 자신들이 전쟁 피해자인 구세대 독신여성과 더불어 싱글 예찬을 부

27 齋藤純一, 『公共性』.

르짓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선 긋기를 하고 있었다.<sup>28</sup>

이렇듯 신세대 독신여성 집단이 등장하면서 도쿠후렌은 구세대 독신여성 조직으로 재규정되었고 그들의 독신됨에 부가된 전쟁이라는 특수성은 더욱 부각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도쿠후렌은 신세대와 연대하는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보다는 동세대 조직으로서 내부적 응집력을 높이고 친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 2) 가족과는 다른 친밀권의 구축

도쿠후렌은 외면적으로 동세대 독신여성 집단이라는 점에서 동질성이 높은 조직이었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소득 수준이나 학력, 직업, 가족적 배경에서 거의 공통점을 찾기 어려운 사람들의 모임이기도 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은 천애고아와 다름 없는 처지의 회원이 있었는데, 이름난 집안의 딸로 본인도 전문직에 종사하는 고소득자도 있었다. 공장 노동자나 전화 교환수가 있는가 하면 대학 교수나 회사 사장도 참가하고 있었다. 따라서 조직에 거는 기대에도 편차가 컸다. 공동 거주, 경제적 부양, 노후 돌봄 등 가족주의 사회에서 가족이 담당하는 기능을 도쿠후렌이 맡아주기를 기대하는 회원들이 있었는데, 취미와 여가를 공유할 수 있는 사교적인 교제로 만족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와 같은 구성원 간의 차이는 가족과 다른 친밀권으로서 도쿠후렌의 운영 방식이나 사업 내용에도 영향을 끼쳤다. 가족의 결핍을 채우는 형태로 가족을 대신하려고 하는 사업과 기존의 가족과는 다른 새로운 친밀권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공존하고 있었던 것이다.

초기의 도쿠후렌은 기대치가 높은 회원들의 요구에 호응하여 가족의 역할을 대신하거나 유사 가족을 이루려는 방향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도쿠후렌 회원을 위한 ‘미니 노인 홈’ 계획을 꼽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창립 당시 설치된 노후대책부를 중심으로 장기간 추진되었는데, 오쿠보 사와코 회장은 앞으로 만들어질 미니 노인 홈에 대한 청사진을 다음

28 青木やよひ, 『シングル・カルチャー: ポスト家族のゆくえ』, 有斐閣, 1987, 216쪽.

과 같이 펼쳐고 있었다.

도심에 위치한 미니 노인 홈 아카네맨션에는 C씨(66세), S씨(59세) Y씨(52세), K씨(52세) 이상 4명의 독신자가 모여 살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도쿠후렌이 운영하는 이 홈은 4명 중 한 명 이상이 65세 이상의 노인이고, 다른 입주자가 50세 이상의 예비노인이면 구성 요건이 충족된다. 이 ‘아카네 맨션’은 본래 C씨의 집이었던 곳을 전액 국가 보조금을 받아 노인 홈으로 개장한 것이다. 4명에게는 각각 개인방이 있으며 부엌과 거실 등을 공유한다. … Y씨와 K씨는 현역으로 일을 하고 있고, 가사를 좋아하는 C씨는 식사 담당, 상사에서 30년 이상 일 해온 S씨는 경리를 담당한다. … 4명은 제 각각의 능력을 살려가며 활기차게 살아간다

- 「미니 노인 홈 일고」, 『아카네』 25호, 1975년 2월

노인 홈이라기보다는 유사가족처럼 보이는 이런 구상은 ‘도쿠후렌 홈 적립금제도’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하지만 당초 천만 엔을 목표로 출발한 이 적립금은 첫 해 가입자 43명이 낸 백만 엔에서 3년이 지나도록 더 이상 늘지 않았고, 그 상태로 10여 년이 지난 후 결국 적립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사업이 종결되었다.<sup>29</sup> 건설 계획의 현실성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공동 거주라는 노후대책에 이처럼 호응이 낮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연구자가 보기에 는 도쿠후렌 회원들이 자가 소유 비율이 높았다는 것과,<sup>30</sup> 자립이 불가능해졌을 때 누가 어떻게 돌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안이 미니 노인 홈 계획 안에 없었다는 것이 주요한 원인이었을 것으로 짐작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독신여성 공동 거주 계획에 이끌려 도쿠후렌에 가입하는 이들도 소수지만 꾸준히 있었으며, 이후에 이 계획은 원형대로는 아니지만 회원들이 개

29 「特集 茜100に寄せて」, 『茜』 100号, 1984年 3月.

30 1992년 잡지와 인터뷰에서 오쿠보 회장은 도쿠후렌 회원 중에 실제로 주택사정이 어려운 사람은 소수이며 60% 이상이 자기집을 갖고 있다고 증언한다. 東京歴史科学研究会婦人運動史部会, 「戦争独身」と女性の戦後—独身婦人連盟会長大久保さわ子氏に聞く」.

인적으로 토지와 자금을 마련해서 각지에 공동의 집을 만드는 형태로 실현 되기도 했다. 그 중에서도 간사이의 아와지 섬에 세워진 ‘만남의 집 아이’ (つどいの家AI)의 경우는 건설 과정에도 도쿠후렌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했고, 완성된 후에도 단체 방문이나 개인적인 장단기 투숙이 이어져 회원들의 ‘별장 겸 친정집’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가족과 다른 친밀권을 구축하려는 도쿠후렌의 사업 중에서 가장 큰 성과를 거둔 것은 지연묘 만들기였다. ‘사후에 갈 곳이 없다’는 것은 오늘날에도 자식이 없는 독신여성들의 공통된 고민거리 중 하나다. 집안에 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적 풍습에 따르면 그 묘는 장남 일가의 몫이고, 자신이 새롭게 묘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찾아와 줄 사람이 없는 것이다. 결국 자식이 있는 형제의 묘에 얹혀가거나 막대한 비용을 들여 절이나 민간회사에 의탁 하는 길밖에 없다. 이러한 독신여성들의 처지에서 볼 때 온나노히사업은 묘지문제 해결에 새로운 돌파구를 제공해 준 것이었다. 1979년 교토에 위치한 절인 조자코지(常寂光寺)의 뒷마당에 ‘온나노히’로 불리는 기념비가 세워졌고 10년 후에는 그 뒤편으로 납골당이 완성되었다. 이후에는 생전에 등록을 해두면 교토에 위치한 절까지 납골을 운반해 주는 자원봉사 시스템까지 마련되었다. 온나노히모임에 가입한 회원들은 현재도 일 년에 한 번씩 비 앞에 모여 그 해에 사망한 회원들을 추모하고 합동으로 제사를 지내고 있다.

이런 활동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온나노히사업은 가족의 범위를 넘어선 묘지 문제 해결의 모범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고, 전국 각지의 독신여성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회원 간에는 “무덤 안에서 만나기 전에, 살아 있는 동안에 차나 한잔 하자”는 뜻에서 ‘뼈자매’(骨姉妹) 모임이 결성되기도 하였다. 납골당의 공간 문제로 회원 접수를 마감할 때까지 온나노히모임에 등록한 독신여성은 총 848명이었다. 사후의 묘 문제로 고민하던 자식 없는 후처(後妻)들로부터도 입회에 관한 문의가 끊이지 않았지만, 회원은 당초의 취지를 살리는 뜻에서 배우자와 자식이 없는 독신여성으로 제한했다고 한다.

노후, 사후와 더불어 가족이 없는 독신여성들의 생활에서 큰 불안 요소는 병이 났을 때다. ‘혼자서 병원에 갈 수 없을 정도로 아프게 됐을 때 어

떻게 할 것인가?’ 이 같은 간병과 관련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간토 지부에서는 ‘간병도우미제도’라는 것을 준비하기도 했다. 병이 났을 때 도우미 회원에게 전화를 하면 즉시 달려와서 의사 수배, 입원 교섭, 필요한 물건들의 준비 등을 도우미가 대행해 주는 제도였다. 200여 명에 달하는 간토 지부 회원 중에서 5명의 회원이 최초로 도우미를 자원하고 나섰다고 한다.<sup>31</sup> 1970년대 중반 발의되었던 이 ‘도우미제도’가 간토 지부에서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에 대한 공식 기록이나 증언은 찾지 못했다. 이것은 자료 수집의 한계이기도 하겠지만 도우미제도가 단명했거나 실효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한다.

친밀한 관계에서의 비공식적 돌봄은 호혜성을 기대할 수 없는 비대칭적 관계인 까닭에 친밀권의 범위를 근린의 면대면 관계에서 확장할수록 지속적 관계 형성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한 의미에서 친밀권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타자가 아니라 “구체적인 타자의 생·생명, 불안이나 곤란에 대한 관심과 배려”<sup>32</sup>인 것이다. 복지문제나 정치적 사안 혹은 묘지처럼 비일상적이고 단속적인 사안을 매개로 할 경우에는 친밀권을 비교적 넓은 범위까지 확장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돌봄처럼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행위가 요구될 경우에는 친밀권이 면대면 관계로 축소되는 경향이 현저하게 나타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친밀하나 아니냐를 따지는 기준이나 관계 설정의 범위가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아니다.

사회운동단체로서 도쿠후렌은 지도부와 규약이 존재하는 종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조직이었다. 그러나 실제 활동은 사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20명 안팎의 작은 그룹 단위로 이루어졌으며, 조직의 성격은 횡적인 동료 집단에 가까웠다. 이 때문에 사업의 기획이나 운영 방식도 본부가 주도하기보다는 특정 그룹이나 개인이 발의하여 회원들의 호응을 얻으면 추진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이런 사업 방식은 리더십 부재라는 비판을 받

31 塩沢美代子·島田とみ子, 『ひとり暮らしの戦後史: 戦中世代の婦人たち』, 岩波新書, 1975.

32 齋藤純一, 「親密圏と安全性の政治」.

기도 했지만 도쿠후렌을 평등한 소통의 장으로 만드는 특성이기도 하였다. 1년에 네 번 발간된 기관지와 간사이 지부와 간토 지부에서 각각 발간된 소식지는 이와 같은 운영과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한 매개자 역할을 하였다. 예를 들어 기관지의 거의 모든 면은 회원들의 투고로 채워졌는데, 그 내용을 보면 독신으로서의 일과 생활, 돌봄과 건강에 관한 개인적 사연 이외에도 도쿠후렌의 이념이나 활동 방향에 대한 개인 자격의 제언이나 비판도 자주 실리고 있었다.

이제까지 도쿠후렌의 활동을 대항적 공공권을 창출하는 과정과 그것을 토대로 가족과 다른 친밀권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친밀권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세히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우선 도쿠후렌이 가족과 다른 친밀권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드러낸 특징적인 요소들을 정리해 본다.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도쿠후렌의 근간을 이룬 것이 실제적인 이익이나 현실적인 성취가 아니라 회원들 간의 강한 동류의식이었다는 점이다. 이 동류의식은 오늘날과 달리 생애미혼자가 드물었던 시대에 독신으로서 정체성을 가졌던 이들에게는 존재의 승인과 관련된 문제였다. 따라서 독신여성들을 도쿠후렌으로 유인한 일차적 요인은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승인받고자 하는 절실한 존재론적 동기였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던 이들이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자신의 존재에 대한 승인을 획득하는 것은 친밀권의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친밀권 형성에서 대항적 공공권과 사회적 승인의 역할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쿠후렌의 친밀권은 일정한 장소나 속성을 공유하는 것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전쟁독신으로서 대항적 공공권을 창출하려는 정치활동을 토대로 구축되었다. 여러 가지 제한은 있었지만 '도쿠후렌=전쟁독신'이라는 사회적 승인의 공간이 획득했기 때문에 장기간 친밀권을 유지하고 확장해 갈 수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짚어두고 싶은 것은 친밀권과 소통 수단의 관계다. 도쿠후

렌 회원들은 창립에서 해산할 때까지 소책자, 엽서, 유선전화 등의 전통적 매체만을 고집했다. 이 점은 새로운 세대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도쿠후렌이 동세대 조직으로 마감한 주된 요인 중 하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것은 소통 수단 자체가 일종의 메시지이며 공감의 기호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특정한 친밀권의 형성과 작동방식을 살필 때는 그들 간의 소통 수단이 지닌 특성 또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 4. 새로운 친밀권의 내용과 조건

참가하는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도쿠후렌은 어떻게 인식되었으며 친밀권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실제 회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었다. 특히 도쿄의 본부에서 활동했거나 간부로서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활동을 전개했던 회원들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족적, 신체적 상황의 제약 때문에 공개된 소통의 장에 나서지 못했던 단위 회원들의 활동과 교류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2012년 12월 도쿠후렌 도카이 지부의 송년회에 참석, 송년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3일간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다.

도쿠후렌 도카이 지부는 2002년 해산 당시 독자적으로 ‘불멸’ 선언을 한 후 2012년 당시까지도 계속 활동해 온 유일한 지부였다. 오랫동안 지부장을 맡아온 나루세 씨는 “도쿄나 간사이 사람들과 달리 우리 도카이 지부는 내세울 만한 성과도 없이 평생 놀기만 했다”는 설명으로 말문을 열었다. 회원도 늘 20명 선으로 단출했으며 나고야에서 도쿠후렌 총회를 개최했던 것과 1995년 한신아와지대지진 때 구조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 정도가 중요한 활동 기록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도쿠후렌 도카이 지부의 2002년부터 2012년까지의 활동 기록을 보면, 이들은 연 평균 6~7회의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져왔는데 그 내용이 말 그대로 친목 활동에 그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최근 2~3년 사이

참가자가 급격히 줄었지만 평균 10명 내외가 모여 연초에는 신년회, 봄에는 꽃구경, 여름에는 맥주파티, 연말에는 송년회, 그리고 가을에는 단체온천여행 등의 정례행사를 벌였고, 그 사이사이 회원의 집들이나, 문병, 노인 홈이나 요양시설의 설명회나 견학회 참가 등의 비정기 모임을 가져 왔다. 지부장의 증언에 따르면 해산 이전의 활동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한다. 앙케트 조사나 취재 등에 협력한 기록이 빈번하다는 것을 제외하면 일견 평범한 친목단체의 활동 기록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이 일상적 교류를 통해 장기간 구축해 온 생활상의 연대와 서로에게 보내는 신뢰에는 단순한 친목회를 넘어서는 지점이 있었다. 그렇다면 도쿠후렌은 어떤 점에서 단순한 친목회와 다른 친밀권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인가. 또 어떻게 이런 일상적 활동을 통해 친밀권을 구축하고 장기간 이어올 수 있었는가. 이 장에서는 도카이 지부 회원들의 사례를 통해 가족과 다른 친밀권으로서 도쿠후렌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에 대해 살펴 보겠다.

〈표 2〉는 2012년 12월 나고야에서 열린 송년회의 참가자 명단이다.

〈표 2〉 2012년 12월 2일 구 독신부인연맹 도카이 지부 송년회 참가자 명단<sup>33</sup>

	생년 (년)	결혼 이력	학력	직업 경력	돌봄 이력	형제	연금 (월)	동거인	주거
에다	1929	없음	여학교	시청 공무원	모(?)	남동생	18만 엔	없음	본인 소유 단독주택
사카이	1930	없음	여학교	회사원	부(?) 모(5년)	남동생 (3명)	15만 엔	없음	임대 시영주택
나루세	1931	없음	여학교	회사원 (23년)	모(3년)	언니	15만 엔	없음	본인 소유 아파트
미야 모토	1933	없음	고졸	대학직원 (30년)		남동생 여동생	17만 엔	없음	본인 소유 아파트
야마다	1943	이혼 2회	고졸	회사원 (20년)	모(11년)	남자 형제(4명) 언니	10만 엔	없음	임대 아파트

33 전원 가명임.

## 1) 입장의 동일함과 대화의 친밀성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야마다 씨의 초대로 연구자는 나고야에서 열린 도카이 지부의 송년회에 참석했다. 당일 참석자는 간사이에서 온 손님인 미야모토 씨를 포함해 총 5명이었다. 연구자가 자기소개와 연구 취지에 대한 설명으로 인사를 마치자 이들은 난처하다는 듯 웃으며 사실 자신들은 ‘전쟁독신’이 아니라 ‘그냥 독신’이라고 ‘자백’했다. 그 이유로 가장 먼저 꼽은 것은 그들이 태어난 해였다. 도쿠후렌 중에서도 다이쇼시대에 태어났던 윗세대들은 정말로 전쟁 때문에 독신이 된 이들이 많았지만, 패전 당시 10대 초·중반이었던 자신들의 독신은 전쟁과는 관계없는 선택이었노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개별 면담에서 이들에게 도쿠후렌이라는 조직에 관해 소개하고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는 모두가 첫 번째로 꼽은 것이 도쿠후렌은 ‘전쟁독신’의 모임이라는 것이었다. 개인사와 모순되어 보이는 이런 진술에 대해 당사자들은 전혀 모순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에 대해 연구자는 이들이 도쿠후렌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전쟁독신’이 실제 독신의 경위를 설명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적 낙인에 저항하는 대항 담론이면서 오늘날의 싱글 여성들로부터 자신들을 구분하는 일종의 세대 담론으로 수용되어 온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sup>34</sup>

이들이 독신을 선택한 경위는 각자 달랐지만, 누구의 지시나 구속도 받지 않는 자유와 스스로 벌어서 먹는 생활상의 자립을 추구한 결과였다는 점에서는 모두 같았다. 그러한 까닭에 이들은 모두 오랫동안 일하다가 퇴직한, 긴 직장 경력의 소유자들이었다. <표 2>의 직업 경력은 연금 계산의 바탕이 되는 직장에서의 근속연수만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학교를 졸업한 직후부터 사환, 점원, 관광 가이드, 타이피스트 등 다양한 비정규직을 경험한 후, 1960년대 전후 여성 사무직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정규직으로 수용되는 과정을 거쳤다. 그 경력이 현재의 안정된 연금생활의 바탕이 된 것이다.

34 3장 1절 참조.

또 <표 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5명 전원이 현재 동거인 없이 혼자 살고 있었다. 이들 중에는 친구가 많고 취미생활이 다양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누구도 혼자 사는 것이 어렵거나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이상 혼자 살 수 없게 되는 시간을 걱정하고 있었다.

… 혼자라서, 딱히 말이지, 우리들은 외롭다고 생각 안 해도 말이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역시 “혼자 사니까 외롭지?” 이런단 말이지. “심심하지?” 이러면서, 가지가지 소리를 해댄다구. 하나도 외롭지 않다고 말해도 믿어주질 않는다니까.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누구누구 부인 쪽이 혼자서 외로운 거야, 남편하고 자식이 떠나버리니까, 혼자서 외로워서… 나야 진작부터 혼자 사는 것에는 익숙한 데다 혼자 있는 편이 자유롭고, 그게 제일 편하지.

-나루세 씨와 면담 녹취 중에서

이들 세대에게 결혼은 노후에 외롭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었다. 이렇듯 결혼규범이 강했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것처럼 독신여성에 대한 비하 또한 혹독했던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 시작된 싱글 붐과 장기불황의 시대를 거치면서 생애미혼자가 급증하고 결혼하고 자식을 낳았어도 결국 노년에는 혼자 살게 되는 ‘오히토리사마(おひとりさま)의 시대’<sup>35</sup>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독신여성과 도쿠후렌을 둘러싼 인식에도 변화가 생겼다. ‘원조 싱글’ 혹은 ‘원조 오히토리사마’로 새삼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당사자들은 이런 상황 변화에 고소(苦笑)를 보내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떤 의미에서의 ‘인생역전’을 체감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오히토리사마의 시대에 이들이 관심이 모으는 이유는 이들이 혼자 살면

35 오히토리사마는 이와시타 구미코(岩下久美子)가 2001년 동명의 수필집 『おひとりさま』(中央公論新社, 2001)에서 「『個』の確立ができていいる大人の女性’, 즉 자립 가능한 여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새로운 시대의 여성상으로 부상했고, 우에노 지즈코의 오히토리사마를 내세운 일련의 저작이 히트하면서 대중화되었다. 현재는 남녀불문하고 혼자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용어로 통용된다.

서도 고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에게는 가족과 다른 친밀한 관계로서 도쿠후렌이 존재하는 것이다. 가족이나 결혼제도 밖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족과 다른 친밀권을 형성하는 것은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다. 때문에 도쿠후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도쿠후렌 사람들은 자신들의 모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연구자가 송년회 참가자들에게 “도쿠후렌은 여러분에게 어떤 모임입니까?, 참가하고 있는 다른 모임과 같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모두가 고개를 저으며 “다르지, 역시, 모두 같은 입장이니까”라고 대답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되묻자 누군가 “말이 통하지”라고 한마디로 답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입장의 동일함과 거기서 파생하는 대화의 친밀성을 본인들의 관계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회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이 입장의 동일함은 자연스럽게 발생했다기보다는 차이와 갈등 속에서 만들어져온 것이었다. 20년 동안 지부장을 맡아온 나루세 씨는 이전에 지부장이었던 두 사람이 “놀이만 하는 것이 싫다면서 그만뒀다”고 회고하면서 도카이 지부 활동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음을 알려주었다. “하고 싶으면 본인이 앞장서면 되는 일을 다른 사람이 적극적으로 운동에 나서지 않는 것을 탓했다”고 논평하면서 “결국 그 사람들도 앞장서고 싶은 마음은 없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렇듯 활동 내용을 둘러싼 견해 차이 외에도, 서로 다른 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간의 피할 수 없는 크고 작은 분란이 상존해 왔다는 것은 회원들과의 개별 인터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와 이질성은 대화의 친밀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드러나고 있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도카이 지부 송년회에서 우연히 천황의 후계자 문제가 화제에 올랐을 때의 일이다. TV에 비친 헤이세이(平成) 천황 부부가 낱이 노쇠해지는 것에서 시작된 화제는 황태자 부부에게 아들이 없는 것을 거쳐 여성 천황의 가능성을 점치는 것으로 흘러갔다. 비슷한 연배가 모인 자리라면 의례 나올 법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수준의 대화였다. 연구자는 내내 조용히 듣고만 있는 옆자리 회원에게 “귀하의 생각은 어

떠신지” 하고 말을 걸었다. 그러자 “나는 이려고 저려고 할 거 없이 이 참에 전부 그만두는 것이 제일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는 대답이 대뜸 튀어 나왔다.

돌이켜 보면 이 상황은 두 가지 점에서 인상 깊었다. 첫째는 뜻밖의 곳에서 천황제 폐지론자와 마주쳤다는 사실이고, 둘째는 그때 좌중 사이에 흐르던 침묵이었다. 당시 연구자는 도쿄에서 장기간 가족을 돌보는 사람들의 자조 모임을 참여관찰하고 있었다. 때문에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모두가 침묵에 들어가는 순간에 익숙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 순간은 해당 모임의 ‘내공’과 친밀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기도 했다. 대부분의 모임에서 그런 식의 침묵이 발생하면 본격적인 토의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침묵을 견디지 못한 참가자가 농담이나 논점에서 빗나간 질문으로 분위기를 누그러트리거나, 아니면 침묵이 해소되지 않고 긴장감이 커지면 결국 진행자가 나서서 ‘각자 생각이 다르니까’로 마무리를 짓고 다른 화제를 제안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개였다.

그러나 도카이 지부 송년회에서 발생한 침묵의 상황은 달랐다. 연구자를 제외하고 아무도 불편해 하지 않았을 뿐더러 해소하기 위해 말문을 여는 사람도 없었다. 마치 길을 가다 넘어진 일행을 기다리기 위해 잠시 멈춰 선 사람들 같았다. 충분히 침묵할 때까지 모두 조용히 있었다. 그렇게 수 분이 흐른 후 화제는 물 흐르듯 최근 연락이 뜸한 동료에 관한 것으로 넘어갔다.

이 침묵을 목격한 후 연구자는 도쿠후렌 사람들의 친밀권에 대해 그동안 품어왔던 의문이 상당 부분 해소되는 느낌이었다. 위의 침묵의 일화가 계층이나 학력을 비롯해 사회경제적 지위가 현격하게 다른 도쿠후렌 회원들이 서로 어떤 방식으로 공존해 왔을지를 시사해 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장기간에 걸쳐 쌓아온 이런 식의 인내가 도카이 지부 회원들이 본부가 해산한 후에도 활동을 이어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다.

## 2) 느슨한 연대와 돌봄의 실천

도쿠후렌 도카이 지부의 회원들 중에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익숙한 사

람은 거의 없었다. 일상적인 연락은 주로 유선 전화를 이용하고 그 외 정기적으로 소식을 전할 때는 우편을 활용하고 있었다. 모임 날짜를 정하기 위해서는 가장 많은 사람이 참가할 수 있는 날을 찾기 위해 서신과 전화를 이용해 대상자 전원에게 평균 2~3차례 이상 연락을 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했다. 만일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생기면 비상연락망을 동원해 원인 규명과 안부 확인에 나서고 있었다. 정기모임이 두 달에 한 번 꼴이라고 하면 이 연락망은 나름대로 활성화되어 있는 셈이었다.

그리고 이 회원들의 활동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이 서로 간병하고 돌보는 활동이었다. 이것은 상호부조의 규약에 따른 활동이라기보다는 안부 확인에서 확대된 자발적인 실천의 성격이 강했다. 누군가 병원에 입원하면 문병을 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 섭외와 입원수속에도 관여하였다. 특히 다른 회원들보다 10살 이상 어린 야마다 씨는 1977년 가입 이래 이런 역할의 선두에 서왔다고 한다. 돌봐줄 가족이 없는 회원의 경우에는 간병은 물론 장례와 납골까지 회원들이 협심해 치렀다. 이것은 활동이라고 말하기는 했지만 그 내용은 회원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을 뿐 활동기록부에도 적혀 있지 않았다.

이렇듯 주도하는 사람은 있지만 일 대 일이 아닌 일 대 다로 구성된 돌봄 관계의 형성은 도쿠후렌의 다른 그룹에서도 발견되었다. 단행본 『도쿠후렌』<sup>36</sup>의 저자인 고쇼 히로에 씨에 따르면 도쿄 무사시노 지역에서 활동해 온 무사시노 그룹의 경우는 제2차 세계대전 때 가족을 모두 잃고 혼자 살아 온 다마 씨가 82세에 치매에 걸리자 2000년부터 2003년까지 회원 3명이 공동으로 다마 씨 집을 드나들며 돌봤다고 한다. 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했다고는 하나 마찬가지로 고령인 다른 회원들이 치매에 걸린 다마 씨를 돌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다마 씨 노트’라는 일지를 만들어 금전 관리를 포함한 생활 전반을 관리하고, 행정관청 업무와 시설 입소 섭외를 떠맡았다는 것이다. 장기간에 걸친 회원들의 이런 노력 덕분에

36 古庄弘枝, 『独身婦人連盟 どくふれん 一元祖 「シングル」を生きた女たち』.

다마 씨는 무사히 좋은 시설에 입소해서 영면할 때까지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런 도움이 바깥에서 보기에는 일종의 보험처럼 든든해 보이기도 해서, 이것을 목적으로 도쿠후렌에 가입한 이들도 있다고 도카이 지부 회원들은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런 이들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그와 같은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는 보장이나 약속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곧 그만두었다고 한다. 연구자의 관찰에 따르면 오랜 세월의 교류 속에서 이들이 암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연대의 원칙은 조합주의적 상호부조도 아니고,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말자’는 형식적 개인주의도 아니었다. 이들이 공유하고 있는 원칙은 ‘가장 곤란한 처지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자’는 여성주의 운동의 기본원리에 가까운 것이었다. 강하게 자립을 추구하지만 연대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서로 간에 도움은 주고받을 수 있지만 의지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자립과 연대 간의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도쿠후렌의 친밀권에서 서로의 생에 대한 돌봄의 실천은 중요한 활동이지만 이들이 실천하고 있는 돌봄은 마사 파인만<sup>37</sup>이 법적 보호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돌봄을 담당하는 사람과 의존자의 직접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돌봄의 연대’와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 종래의 친밀권 연구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던 탓에 혼란이 초래된 부분이 적지 않은데, 이것은 사이토 준이치의 친밀권 정의가 이 부분을 모호하게 처리한 탓도 있다고 생각한다. 연구자는 친밀권의 돌봄이 반드시 직접적이고 전면적인 돌봄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도쿠후렌 도카이 지부 회원들이 동료들 간병하고 장례를 지낸 활동이나 무사시노 그룹이 몇 년 동안 치매에 걸린 동료를 돌본 것은 전면적인 돌봄에 가까운 것이지만, 그것은 친밀권의 속성에서 담보된 활동이라기보다는 일정한 조건에서 친밀권과 ‘돌봄의 연대’가 접합(articulation)되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돌봄의 의미에서

37 Martha A. Fineman, *The Autonomy Myth: A Theory of Dependency*, NY: The New Press, 2004.

보자면 통상적인 친밀권의 돌봄은 느슨한 연대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상적 돌봄 쪽에 더 가까운 것으로 생각한다.

친밀권은 강한 연대로서의 가족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다. 애초에 들고 나는 것이 자유롭다고 하는 친밀권의 속성은 근원적인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것은 도쿠후렌 회원들이 보여준 바와 같이 느슨한 연대를 장기간에 걸쳐 단단하게 구축함으로써 극복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 관계로 어떻게 생의 의지처를 만들 수 있느냐?’는 반박이 있을지 모르겠다. 대개 이런 질문은 ‘그런 관계로는 종래의 가족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그 생각의 근거에는 누구에게나 가족이 있는 것이 당연하며 가족 형성을 개인의 의지 문제로 여기는 사고방식이 깔려 있다. 즉, 가족 없는 사람들이 직면한 생의 곤란을 직시하기보다는 ‘가족을 만들면 된다, 결혼하라’고 권유하는 정책 담당자들의 입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파인만<sup>38</sup>이 적절하게 지적한 것처럼 한 쌍의 남녀의 성적 연대로 구성된 근대 가족은 내용 연수가 다했고 이미 영속성과 안정성을 상실했다. 친밀권의 불안정성의 대안이 근대 가족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향후 가족 없는 비혼자들의 친밀권 문제는 ‘결혼의 권유’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도쿠후렌처럼 일상적인 돌봄의 실천을 통해 느슨한 연대를 단단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를 모색하고 궁리하는 쪽으로 논의의 초점이 옮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 3) 가족과 다른 친밀권의 승인 문제

〈표 2〉에서 나타난 참가자들의 부모 돌봄의 이력이 보여주듯이 도쿠후렌 회원들의 대다수는 장기간 노부모를 돌본 이력의 소유자들이었다. 에다 씨와 사카이 씨는 평생 부모와 동거하면서 부모를 부양하고 임종을 지켰고, 나루세 씨는 전쟁으로 아버지를 잃은 후 편모를 돌보며 20대를 보냈다고 한

38 Martha A. Fineman, *The Neutered Mother, the Sexual Family and Other Twentieth Century Tragedies*, pbk. New York: Routledge, 1995.

다. 그런가 하면 야마다 씨는 34살 때 이혼한 후 20년 가까이 혼자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가 된 어머니가 장남의 집에서 독신인 딸의 집으로 훌쩍 옮겨오는 바람에 동거가 시작되었다고 했다. 4남 2녀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여러 차례의 회의 끝에 아버지가 남긴 집의 절반을 물려받는 조건으로 야마다 씨가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돌보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야마다 씨는 그로부터 14년 동안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동거한 지 3년 만에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져 자리보전 상태가 되자 야마다 씨는 다니던 직장을 퇴직하고 이후 11년 동안 집에서 어머니를 돌보았다.

이렇듯 이들은 모두 장기간 부모를 돌봤지만 본인들에게는 돌봐줄 자식이 없다. 그렇다면 이들은 자신들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우선 가족관계를 살펴보면 미야모토 씨를 제외한 모든 이들은 형제들과 정기적으로 서로 연락하며 방문하는 사이로 지내고 있었다. 특히 사카이 씨 남동생들의 경우는 과거 그녀에게 부모를 맡기고 타지로 나갔던 것을 못내 미안하게 생각하는 까닭에 만년에 누나에 대한 ‘효행’이 대단하다고 다른 회원들의 치사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 이렇듯 형제관계가 가까운 경우에도 그들의 자식인 조카들과는 거의 왕래가 없이 지내는 것이 보통이었다. 예를 들면 6남매와 그 자손들이 모두 나고야 지역에 살고 있고, 정기적으로 마작 모임을 열 정도로 형제 관계가 좋은 야마다 씨조차 “조카들 얼굴을 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본 것이 어머니 장례식이니까 4년 전이다. 조카들의 결혼식에도 초대받지 못했다”라고 말해 한국인인 연구자를 놀라게 했다. 이후에, 결혼한 조카 둘이 직계가족만 데리고 하와이에 가서 결혼식을 올렸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듣고서 상황을 이해했고, 그렇게 결혼식에 친척을 부르지 않는 것이 오늘날 일본에서 흔한 일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렇듯 노후의 돌봄은 그만두고라도 세대가 다른 친족이 서로 얼굴을 맞댈 기회조차 드물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때문에 자립이 불가능하게 됐을 때 조카들이 자신을 돌봐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도쿠후렌 회원은 매우 드물었다.

그런 까닭에 도쿠후렌 도카이 지부 회원들은 혼자 사는 사람을 위한 돌

봄 서비스나 요양시설에 관심이 많았고, 새로운 시설이 생기면 단체로 설명회나 견학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오래 전부터 병원 보증인과 장례 등을 대행해 주는 상업적인 가족대행 서비스에 가입하고 있는 이도 있었고, 회원 중에는 이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어하우스에 입소해서 살고 있는 이도 있었다. 하지만 혼자 사는 것을 선호하는 이들은 시설에 들어가기보다는 가능한 오랫동안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최근에 혼자 살던 회원 중 한 명이 한밤중에 뇌경색으로 쓰러졌는데, 다음날 오후 헬퍼<sup>39</sup>가 방문하고서야 발견되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장시간 방치되어 있었던 탓에 결국 반신마비와 언어장애를 입게 된 동료의 불행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이들은 혼자 사는 사람의 운명이라고 말했다. 각오를 단단히 하고 서로 안부 전화를 더 자주 걸자는 의논을 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혼자 사는 도쿠후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람직한 돌봄이란 어떤 것일까? 단순화해서 전하자면 자원을 가족, 상업 서비스, 도쿠후렌으로 놓고 볼 때, 이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세 가지를 모두 취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실제 선례를 보면 가족과 도쿠후렌을 함께 취할 수 있는 상황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종말기가 다가오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도쿠후렌에 남지만, 재산이 좀 있으면 반드시 어디선가 가족이 나타나서 데려가 버린다”는 것이었다. 연구자가 참석한 송년회 자리에서도 최근 연락이 두절된 마키 씨가 화제에 올랐다. 아마다 씨가 며칠째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시간대를 바꿔가며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는다고 ‘실종’을 보고했고, 마지막으로 연락이 닿았던 회원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이어진 뒤, 몇 주 전 마키 씨의 몸 상태가 나빠져 헬퍼가 전화를 대신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런 식의 돌연한 행방불명에 익숙해진 회원들은 서로의 말을 맞춰본 끝에, 마키 씨가 이미 자리보전 상태가 되었는지 격리된 시설로 옮겨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덧붙여 연구자를 향해, 가족이나 행정 담당자는 도쿠후렌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줘야 한다는 생각 따위는 절대로

39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에서 가정을 방문해서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 개호원의 통칭.

안 한다며 한숨을 쉬었다.

마키 씨와 각별하게 사이가 좋았다는 아마다 씨는 이 행방불명에 대해 초초감과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듯했다.

마키 씨는 나하고는 정말 사이가 좋아서 나를 양녀로 들이네 어쩌네 하는 이야기도 서로 오갔을 정도였다. 하지만 역시 재산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도쿠후렌을 내걸고 가까이 갈 수는 없다. 조카들이 오해할 테니까. 이런 식으로 연락이 두절되는 사람은 다 재산이 좀 있는 사람들이다. 재산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이 절대 없다. 유서를 작성해 놓자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게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고, 그냥 종이에다 적어놓는다고 해 봤자 별 효력도 없고, ‘이거 뭐야’ 하면서 내버리면 그만이니까.

- 아마다 씨와 나는 대화기록 중에서

종말기에는 법적 책임을 지는 가족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또한 돌봄의 책임을 맡은 사람들로서는 설사 도쿠후렌의 존재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복잡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연락두절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구자는 위와 같은 상황을 보며 상식적인 의문을 품게 되었다. 우선 가족이 아니라고 오랫동안 함께 지내온 사람들이 소식을 알고 접견할 권리조차 보장되지 않는 것인가 하는 점이였다. 또한, 돌봄의 질에 관해서도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가까운 사람끼리 서로의 안부를 궁금해 하고 확인하는 것, 이것은 사람으로서 마지막까지 하는 활동이고 살아있다는 증거와 다름 없다. 만일 이러한 활동이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경시 당한다면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생각하는 돌봄이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일본 정부는 최근 급증하는 노인 돌봄 수요와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돌봄을 다시 가족화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다. 또한 이와 동시에 인구 변동에 따른 가족 돌봄 자원의 감소를 메우기 위해 이웃 간에 상부상조하며 살던 마을의 전통을 살리자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TV에서는

시타마치나 도시의 집합주택에서 맺어지는 유사가족관계를 미화하는 프로그램이 증가하고, 노인 돌봄을 테마로 한 커뮤니티 카페가 행정의 지원을 받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장려는 달리 보자면, 가족과는 다른 친밀권에서 행해지는 돌봄의 실천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정책 차원의 관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도쿠후렌의 예에서 보듯, 다자 간의 친밀한 관계는 간단히 구축되기 어려운 것이다. 설사 있다 하더라도 기존의 제도와 행정 시스템에서 그 존재는 비가시화되고, 가족이라는 친밀권의 절대적 우위 앞에서 무기력해지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그것이 갖고 있는 돌봄의 잠재성을 충분히 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가족주의사회에는 도쿠후렌처럼 가족 이외의 다른 친밀권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첫머리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가족주의란 여러 친밀권 가운데 하나인 가족을 특권화해 일종의 위계질서를 형성한다. 이러한 위계질서는 가족이라는 친밀권과, 가족과 다른 친밀권 간의 경합과 갈등의 원인이 되며, 거기에서 각 주체들의 다양한 전략과 정치가 발생한다. 그런데 사이트의 관점에서 보자면 친밀권은 정치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니다. 정치는 어디까지나 빛의 세계인 공공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친밀권의 어둠은 정치를 만들어내는 자궁과 같은 구실을 할 뿐이다.<sup>40</sup> 물론 그 역시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여성주의의 아젠다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공사 영역의 이분법을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공사 영역에 대한 빛과 어둠의 이분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친밀권 안에 존재하는 차이와 항쟁을 보지 못한다. 그러나 친밀권 내부의 차이와 항쟁을 무시하고서는 가족주의가 강하게 작동하는 사회에서 가족 없는 사람들의 친밀권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비혼자의 친밀권 연구에서는 친밀권 내부의 차이에 주목하고 특히 가족과 가족과 다른 친밀권 간의 역할을 규명하는 방향으로 친밀권의 정치학을 정교화해 가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40 각주 2 참조.

## 4. 맺음말

이제까지 전후 일본에서 생애미혼자 집단이 어떻게 등장했으며, 어떤 방식으로 가족과 다른 친밀권을 형성해 왔는지를 도쿠후렌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결성 초기 도쿠후렌은 독신여성을 ‘팔다 남은 상품’으로 비하하는 낙인에 대항하기 위한 담론으로 전쟁독신을 내세우면서 공공 영역에 진출하려 힘을 기울였다. 그렇지만 1980년대 이후에는 ‘싱글 붐’ 등의 시대 변화와 더불어 활동의 초점이 회원들 간의 친밀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옮겨갔다. 도쿠후렌의 친밀권은 동일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장기간에 걸친 일상적 교류와 돌봄의 실천을 통해 느슨한 유대를 단단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구축된 것이었다. 연구자의 현장 조사에 따르면 당사자들에게 도쿠후렌은 ‘부르면 들리는 거리에, 내가 살아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구체화되고 있었다. 이처럼 “생·생명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지속되는 관계성”이 구축되었다는 의미에서 도쿠후렌은 운동단체나 친목회를 넘어서 친밀권으로 작동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도쿠후렌처럼 가족과 다른 친밀권은 가족에게 배타적 우선권을 부여하는 가족주의 사회와 종종 갈등관계에 놓이게 되는데, 이 점을 다루는데 친밀권을 정치가 없는 공간으로 규정하는 기존의 친밀권의 정치학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하나의 친밀권 안에서, 또 복수의 친밀권 간에 발생하는 차이와 항쟁을 중심으로 가족주의사회의 변화를 파악하는 친밀권의 정치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는 것이다. 연구자는 이 친밀권의 차이와 항쟁을 파악하는 핵심어를 돌봄이라고 생각하며 있으며 이후에도 비혼자 연구의 맥락에서 이 돌봄과 친밀권의 문제를 탐구해 나가려고 한다.

---

### 참고문헌

古庄弘枝(2005), 『独身婦人連盟 どくふれん—元祖「シングル」を生きた女たち』, 東京: ジュリアン

出版.

- 谷嘉代子編(1989), 『女ひとり生き ここに平和を希う—昭和戦争独身女性の証言』, 東京: 一休社.
- 久保田裕之(2009), 「「家族の多様化」論再考—家族概念の分節化を通じて」, 『家族社会学研究』 21(1).
- 久保田裕之(2011), 「家族社会学における家族機能論の再定位: 〈親密圏〉・〈ケア圏〉・〈生活圏〉の構想」, 『大阪大学大学院人間科学研究科紀要』 37.
- 東京歴史科学研究会婦人運動史部会(1992), 「「戦争独身」と女性の戦後—独身婦人連盟会長大久保さわ子氏に聞く」(女性史特集—歴史のなかのシングル), 『歴史評論』 1992-03.
- 落合恵美子(2004), 『21世紀家族へ: 家族の戦後体制の見かた・超えかた』 第3版, 東京: 有斐閣[고바야시 카즈미·김향남 옮김(2004), 『21세기 가족에게—일본의 가족과 사회』, 양서원. 1997년에 출간된 제2판의 번역임].
- 上野千鶴子(2008), 「家族の臨界: ケア分配公正をめぐる」, 『家族社会学研究』 20(1).
- 塩沢美代子·島田とみ子(1975), 『ひとり暮らしの戦後史; 戦中世代の婦人たち』, 岩波新書.
- 齋藤純一(2000), 『公共性』, 東京: 岩波書店[윤대석·류수연·윤미란 옮김(2009), 『민주적 공공성: 하버마스와의 아젠트를 넘어서』, 이음].
- 齋藤純一(2003), 「親密圏と安全性の政治」, 『親密圏のポリティクス』, 東京: ナカニシヤ出版.
- 齋藤純一·竹村和子(2001), 「親密圏と公供圏の「あいだ」—孤独と正義をめぐる」, 『思想』 925.
- Bachnik, Jane M.(1983), "Recruitment Strategies for Household Succession: Rethinking Japanese Household Organization," *Man* 18.
- Cornell, Laurel L.(1984), "Why Are There No Spinsters in Japan?" *Journal of Family History* 9.
- Fineman, Martha A.(1995), *The Neutered Mother, the Sexual Family and Other Twentieth Century Tragedies*, pbk, New York: Routledge.
- Fineman, Martha A.(2004), *The Autonomy Myth: A Theory of Dependency*, NY: The New Press.
- Gorden, Andrew(1997), "Managing the Japanese Household: The New Life Movement in Post War Japan," *Social Politics*(summer).